



대학 진학 정보

적성평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대학별 고사 중 하나인 적성평가는 언어사고력과 수리사고력을 측정하며, 대학마다 학업적성검사, 인적성검사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출제 영역과 범위도 차이가 있습니다. 적성평가 실시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출문제나 예시문제 등을 통하여 정답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풀어본 문제에서 정답률이 50~60%를 넘는다면 해당 대학을 준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정답률이 50%를 넘지 못하면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학마다 출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등을 통해 출제영역과 경향을 익힌 후에,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하게 공부하고, 많은 문제 풀이를 통해 시간 배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 대학 외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성 평가 실시 대학>

구분	대학
수시	강원대, 경북대, 고려대(세종), 금오공과대, 한국외대(글로벌), 한밭대, 한양대(ERICA) (7개 대학)
1차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경기대(수원), 경기대(서울), 단국대(천안), 대전대, 동덕여대, 명지대(용인), 명지대(서울), 서경대, 성결대, 수원대, 안양대, 울산대, 을지대(성남),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성대, 호서대, 홍익대(세종) (21개 대학)
2차	가천대, 강남대, 경기대(수원), 경기대(서울), 단국대(천안), 수원대, 을지대(성남), 을지대(대전), 평택대, 한신대 (10개 대학)

자료: 2013년 1월 4일 기준

또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적성검사는 30~40초에 1문제 정도의 시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문항 수는 50~120개 안팎이고 이 문항들을 60~80분 정도에 풀어야하기 때문에 문항 수에 비해 시험 시간이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성평가 실시 대학 중에는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보다 일찍,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4학년도 대입정보 119) -

이런 학과, 궁금해요

도시공학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시의 계획과 관리, 개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도시공학과는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 교통 등의 도시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시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적인 설계능력을 갖춘 도시공학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무엇을 배우나요?** 도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설계, 교통계획, 도시개발, 환경계획등과 같은 기초과목을 배웁니다. 도시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공학이나 토목공학 등 관련된 과목과 도시구조, 도시법규, 도시정책 같은 심화과목도 함께 배웁니다.

■ **이와 관련된 대학의 학과呢요?** 주로 4년제 대학교에 도시공학과 혹은 도시공학전공 이라는 이름으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도시환경공학과, 도시건설공학과 등의 이름으로 개설되기도 합니다.

■ **졸업한 후 진로는요?** 졸업 후에는 도시계획이나 교통체계 관리, 지리정보 등과 관련된 기술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건설, 교통, 토지, 도시개발과 관련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QR코드



미래의 직업 세계

감정평가사는 토지, 공장, 건물, 광산 등과 같은 부동산을 비롯하여 항공기, 선박, 기계기구 등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특허권,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땅도 동네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감정평가사는 땅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땅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판매나 구매, 과세나 자산 처분 등에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폰 QR코드



■ **하는 일**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특정한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해당 물건에 대한 입지, 용도, 주변시설 등에 관한 현장조사를 통해 최적의 가격을 정한 후,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직업이 바로 감정평가사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의뢰하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평가업무도 수행합니다.

■ **적성 및 흥미** 감정평가사는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재산의 가치를 잘못 판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 정직성,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숫자를 계산하는 일을 하므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수리에 흥미가 있으면 좋습니다.

■ **되는 길**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학력과 전공의 제한은 없으나, 법학, 경제, 부동산, 도시학과 관련된 과목의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 **전망**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감정평가사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산정 등 안정된 일감이 있고,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과 특허권, 영업권과 같은 특수한 감정평가,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제공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정보센터

진로 보물 창고

입체적 개인 맞춤형 진로·직업 상담 체계 구축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진로 조언 및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직 진로교사로 구성된 ‘커리어넷 사이버 상담위원단’을 운영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www.career.go.kr)은 종합 진로정보망으로 학과 및 직업정보, 심리검사 등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사이버 진로 상담을 위해 총 200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들로 사이버 상담위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및 상담 슈퍼비전 연수 등을 통해 상담위원단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커리어넷 사이버 상담위원단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커리어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상담하고, 온라인으로 집중되는 상담 수요를 필요에 따라 지역에서 면대면 상담으로 분산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의 진로·직업 상담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커리어넷 사이버 상담위원 200명이 학교에서 면대면 상담을 수행하는 진로진학 상담교사 4,550명, 그리고 학교 진로 상담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코치 6,693명과 함께 진로 상담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진로 상담 수요자에게 때와 장소의 장벽을 극복해주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을 듣고 답해줄 수 있는 입체적인 상담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교육부와 커리어넷은 이러한 입체적인 상담 체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고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자료 제공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정보센터